

아픔의 공간을 음악과 미술의 무대로 채우다

양상블 칸타빌레 '도심 속 작은 음악회'
19일 옛 광주교도소 주차장
클래식 감동과 미술 즐거움, 추억으로



소프라노 고보람



바리톤 김주현



미술사 제이식

옛 광주교도소는 광주의 아픔이 고스란히 새겨진 공간이다.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이 주둔했고,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끌려와 모진 고문을 당했다.

아픈 기억이 서린 장소가 예술을 통해 새롭게 빛난다. 양상블 칸타빌레는 오는 19일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주차장에서 '도심 속 작은 음악회'를 연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마법을 품은 음악회'. 이름처럼 음악과 미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된다.

'도심 속 작은 음악회'는 광주 북구가 매년 마련해 온 생활 밀착형 공연 시리즈이며, 올해 처음으로 옛 교도소 터에서 공연이 마련됐다. 억압과 상처의 기억이 서린 공간이 음악과 공연예술을 통해 시민들에게 치유와 화해의 시간을 선물하는 자리로 변신하는 것이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과 대중음악, 성악과 미술을 아우르며 다채롭게 꾸며진다. 양상블 칸타빌레가 중심에 서고 바이올린 강작·강상, 비올라 신세민, 첼로 김도영, 피아노 정의민 등이 함께한다.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모두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곡들로 채워졌다. 영화 '시네마 천국' OST, 디즈니 '라이온 킹'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오즈의 마법사'의 'Over the Rainbow' 같은 곡들이 차례로 이어지며 관객을 사로잡는다.

클라리네티스트 장양유는 모차르트가 생애 마지막 시기에 남긴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을 들려준다. 영화 '아마데우스'에도 사용된 이 곡은 부드럽고 서정적인 선율로 따뜻한 위로처럼 다가오는 작품이다. 이어지는 곡은 영화 '미션'의 주제곡으로 잘 알려진 엔니오 모리코네의 '가브리엘즈 오보에'. 원래 오보에로 연주되는 선율을 클라리넷의 깊은 음색으로 재해석해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성악가들의 목소리도 공연을 풍성하게 한다. 바리톤 김주현은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이름 없는 꿈'을 통해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투우사의 노래'에서는 힘찬 에너지로 무대를 가득 채운다.

소프라노 고보람은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의



19일 양상블 칸타빌레가 옛 광주교도소 주차장에서 '도심 속 작은 음악회'를 연다.

〈양상블 칸타빌레 제공〉

'밤새도록 춤출 수 있다면'과 '오페라의 유령'의 'Think of Me'를 부르며 청아하고 맑은 울림을 선사한다.

두 성악가는 마지막 무대에서 다시 호흡을 맞춰 '오페라의 유령'의 이중창 'All I Ask of You'를 들려주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무대 사이사이에는 미술사 제이식(진술가)이 등장해 극적인 재미를 더한다. 어린 시절 꿈을 쫓던 자신의 이야기를 곁들인 스토리텔링 미술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관객들에게 환상극장을 찾은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양상블 칸타빌레는 2022년 창단 이후 광주와 전남을 무대로 활발히 활동해온 단체다. 전국제전 기념공연 '동행', 이탈리아 피렌체 푸치니 100주년 기념 연주, 키즈 클래식 콘서트 등에서 클래식의 대중화를 꾸준히 실험해왔다.

김은민 대표는 "이번 무대는 과거의 공간을 예술로 다시 채우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클래식이 주는 감동과 미술의 즐거움이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새로운 추억으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평범과 비범 사이...국악의 또 다른 얼굴



'문턱 2025' 지난 공연 모습.

〈나랩 제공〉

나랩 기획공연 '평범과 비범'...26일 보헤미안공연장

하루의 풍경은 대개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늘 다른 결이 숨어 있다. 익숙한 소리와 몸짓이 새로운 맥락에 놓일 때 평범은 비범으로 변한다. 일상의 평범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게 해주는 무대가 펼쳐진다.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은 오는 26일 오후 7시 보헤미안공연장에서 기획공연 '평범과 비범'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국악의 깊이와 생동감을 색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는 자리로, 나랩의 기획 시리즈 '문턱 2025'의 일환이다. 2023년 시작된 '문턱'은 공연의 장벽을 낮추고 관객이 보다 쉽게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시리즈다.

이번 공연의 캐치프레이즈는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음악, 평범한 음악의 비범한 사회화'.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울림을 지닌 음악,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다가오는 선율처럼 이번 무대는 국악을 친근하게 풀어내면서도 색다른 매력을 전한다.

무대에는 정악, 판소리, 산조, 사물놀이, 민요 등 국악의 다양한 장르가 오른다. 해설과 설명이 곁들여져 단순한 감상에 그치지 않고 국악의 뿌리와 맥락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박소연, 장유진, 김하린, 최옥미, 윤연나, 김단비, 심민지, 김현무 등 젊은 국악인들이 출연해 각자의 악기와 소리로 전통을 지키면서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낸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의 형식 또한 눈길을 끈다. 일반적인 공연장이 아닌 클럽 분위기를 도입해 관객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음료가 무료로 제공되며 전통주 막걸리도 마련돼 국악과 전통주가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현무 나랩 대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류의 원천에 국악이 있음을 알리고, 전통이 어떻게 오늘의 문화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국학생시조공모전' 진도 지산중 양랑희·의신초 양랑희 대상

최근 열린 제23회 전국학생시조공모전에서 진도 지산중 양랑희, 진도 의신초 양랑희 양이 각각 중등부, 초등부 대상을 차지했다. 수상작은 각각 '코알라', '가족신발'.

광주전남시조인협회(회장 서연정·협회)는 2025 청소년시조문학축제(9월 20일) 일환으로 개최한 시조공모전에서 양랑희, 양랑희 양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양랑희, 양랑희의 두 자매는 시에그린한국시와 박물관이 운영하는 '나도작가' 아카데미 출신이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공모전에는 전국 각처에서 학생들의 시조 344편이 응모됐다. 그 결과 초등 21명, 중등 5명, 고등 7명 등 순위별 총 33명이 입상했다.

특히 초등부 응모가 194편에 이르렀고 좋은 작품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중등부는 참여가 다소 저조했지만 수상작들은 수작들이었다고 한다.

윤삼환(시인, 초등 심사평), 고정선(시인, 중등 심사평), 노창수(시인, 평론가, 고등 심사평) 원로 시인들의 엄정한 심사를 했다. 당선작은 책으로 엮어 시상식 당일 오는 9월 20일 배부될 예정이며 시조낭독 행사도 펼쳐진다.

시인인 이지엽 관장(경기대 명예교수)의 재능기부로 진도의 문학 영재들을 지도하는 '나도작가' 클럽은, 지난 7월 중앙일보 주최 '제11회 중앙학생시조백일장'에서도 진도고 이유나 양의 최우수상 외 다수 학생이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양랑희



양랑희

'나도작가' 아카데미는 문호가 열려 있으며 수시로 학생들을 모집한다. 운영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이며 수업은 줌(ZOOM) 및 해변시인창작학교 집중교육을 통해 이뤄진다. 이지엽 교수가 직접 강사로 나서 시, 시조 등 문예적인 글쓰기를 지도한다. 문의 시에그린한국시화박물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